

2018년 5월 4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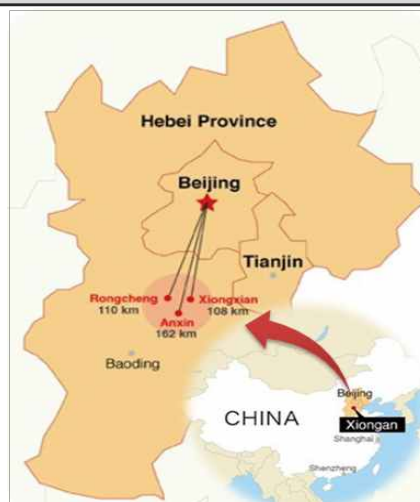
csf@kiep.go.kr

허베이(河北) 승안신구(雄安新区) 건설 계획 발표



- 2018년 4월 22일 중국공산당 허베이성 위원회와 허베이성 정부는 승안신구의 종합적인 건설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 「허베이 승안신구 계획 강요(河北雄安新区规划纲要)」(이하 계획)를 발표함.
- 2017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승안신구의 설립을 결정하였고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허베이성 정부가 구체화된 로드맵을 제시한 것임.
- 승안신구 건설은 중국의 수도권 균형발전 전략인 징진지 협동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됨.¹
- 승안신구는 허베이성 바오딩시(保定市)의 3개 현(縣)에 조성되며, 전체 면적은 1,770km²에 달함.
 - 룡청현(容城县) 부근의 100km² 부지가 초기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우선적으로 개발될 예정임.

그림 1. 승안신구 위치



자료 : Caixin(2017.4.7), 「Fact Box: Five Key Elements of Xiongan New Area」.

¹ 징진지(베이징, 톈진, 허베이) 협동발전 전략은 베이징의 '비 핵심적인 수도 기능(非首都功能)' 조정을 통한 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가전략임. (『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』(2017), KIEP.)

* 비 핵심적인 수도 기능: 2014년 중앙정부가 수도 베이징의 핵심기능을 '정치, 문화, 국제교류, 과학기술혁신'으로 제시한 이후, 베이징은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, 공공서비스, 산업(제조업 위주) 등을 비 핵심 기능으로 분류함. 베이징의 이러한 비 핵심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자원 또한 톈진과 허베이로 분산하여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

- 숭안신구는 2035년까지 베이징의 '비(非) 핵심적인 수도 기능'이 집중적으로 이전되는 지역이자, 첨단기술력이 집약된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예정임.
- 기획에서는 베이징의 비핵심 기능 중 대학, 병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과 과학기술기구, 첨단기술기업 등 혁신자원이 중점적으로 이전될 계획임을 밝힘.
-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발전을 추진하고, 에너지·교통 등 인프라의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할 방침임.

표 1. 숭안신구 기획 강요의 주요 영역별 건설 계획 및 추진 현황

영역	계획	추진 현황(2017. 4~2018. 4)
환경	-바이양톈(白洋淀) 호수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: △바이양톈의 수질 개선 △호수 생태환경 관리·제어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화 -대규모 삼림 조성: 국토 녹화 프로젝트를 시행 (산림율 11%→40%로 확대) -대기 질 개선: 에너지 소비구조를 최적화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를 모두 청정에너지원으로 변경	-2017년 12월 허베이성 환경보호청은 숭안신구 생태환경 보호사업 영도소조 구성 -2017년 11월 삼림 조성을 위한 천년수림(千年秀林) 프로젝트 시작
첨단 산업	-베이징 수도 비핵심 기능 이전: △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구의 분교·분원 설립 △의료기관 및 금융기관 △선진서비스 및 첨단기술산업 관련 기업 이전 -첨단산업 육성: △차세대 IT(사물인터넷,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) △생명과학 및 바이오기술 △신소재 △고급 서비스 △생태농업	-금융서비스 기관, 기술연구원, IT·환경 관련 총 48개 기업 입주: 이중 IT 분야 14개, 금융서비스 기관 15개, 첨단기술연구원 7개, 환경기업 5개
공공 서비스	-양질의 서비스시설 배치: 교육기관, 의료기관, 문화센터, 지역서비스센터 등 -공공서비스 수준 제고	-초기개발구역인 룡청현 내 숭안 시민 서비스 센터 건설 중: 숭안신구 첫 번째 건설프로젝트로 약 8억 위안(1,400억 원) 투자되었고, △행정 서비스 △회의 및 기획전시 △기업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
교통망	-징진지 지역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: 숭안신구와 베이징, 톈진, 스자좡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(숭안신구를 중심으로 베이징 신공항 20분, 베이징·톈진과 30분 교통권 구축) -친환경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: △'대중교통+자전거+도보'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△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	-베이징과 숭안 간 징승 철도 건설 착공: 335억 3,000억 위안(약 5조 6,600억 원)이 투자되었고, 2020년 개통 예정
친환경 스마트시티	-저탄소 녹색발전 추진: △탄소배출 규제 강화 △스펀지 도시 건설 △친환경 건축 추진 -디지털 도시 건설: 숭안신구의 인프라 스마트화 수준 90% 목표 △데이터 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△스마트 에너지, 교통, 물류 시스템 구축 등 도시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	-숭안신구 관리위원회와 중국의 3대 IT 기업인 BAT와 전략적 협력 체결: 알리바바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, 바이두는 오픈소스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(Apollo)를 숭안신구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용

주 : 중국공산당 허베이성 위원회·허베이성 정부(2018), 「허베이 숭안신구 기획 강요(河北雄安新区规划纲要)」, 央视新闻(2018.04.02.), 「雄安新区一周年 这座城正在如何改变?」, 뉴스핌(2018.04.02), 「시진핑의 신도시」 '중국판 세종시' 숭안신구는 지금」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

- 숭안신구는 중국 수도권 지역의 인구, 자원 및 산업구조를 재배치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징진지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,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식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
- 중국 수도권 지역에서 허베이는 베이징과 톈진의 배후 공업기지로 활용되었으나, 숭안신구 조성을 계기로 베이징의 우수한 과학기술 혁신자원 유입과 대규모 투자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

- 승안신구 초기 개발에 투자되는 금액만 5,000억 위안(약 85조)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²
- 중국의 3대 IT기업이 모두 승안신구에 입주하였고, 승안신구 관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여 첨단 기술이 응집된 중국식 스마트시티의 구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.
- 허베이는 한·중 정부간 환경분야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향후 정부협력의 내용을 활용하여, 우리기업의 승안신구 환경분야 프로젝트 진출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- 허베이는 ‘한·중 철강분야 대기오염 방지 실증사업’³ 과 최근 본격화된 ‘한·중 미세먼지 저감사업’⁴ 의 대상지역임. CSF

(작성자 :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)

2 证券日报(2017.5.4), 「雄安新区初期建设投资或达5000亿元 PPP成招商引资重要“工具”」.

3 2014년 7월 체결한 한·중 환경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국내 환경기술을 적용해 중국 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기획, 지원하는 협력 사업임. (『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: 환발해지역』(2016), KIEP.)

4 양국간 미세먼지 저감과 양국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. 이 사업을 통해 중국 산시성,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음. (아시아경제(2018.04.22), 「한·중 미세먼지 저감 사업 본격화...국내 환경기업 12곳 선정」.)